



서귀포온성학교 - 힘을 기르는 사랑의 배움터

장애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편견없이한사람의사회인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에게는 꿈이자 소망이다. 가정에서는 걱정거리로, 학교에서는 무능 학생으로, 그리고 사회에선 학생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자라면서 꿈도 희망도 접게 되는 것이 우리 장애 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사는 힘을 기르는 서귀포온성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서귀포온성학교는 정신 지체 학생 및 지체부자유학생 84명, 15학급으로 2006년 3월 10일 개교하여 현재 1년이 막지 않은 새내기 학교이다. 이들과 함께하는 교직원 6명은 혼신을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2006년 12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설계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펜션 같은 학교

사랑하는 자녀를 품안에 안은 듯 한라산 자락에 살포시 안긴 서귀포온성학교는 제주에서 한라산을 가장 가깝게 볼 수

는 학교이다. 한라산의 남쪽 부분에서 한 걸음이면 올라갈 것 같은 한라산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하다. 한라산에 구름이 없는 날이면 서귀포온성학교의 초록색 운동장과 한라산이 한 폭의 그림처럼 가깝게 다가온다.

서귀포온성학교는 특수 학교이면서도 다른 일반 학교의 느낌을 완전히 배제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먼저, 오밀조밀한 삼각형 모양의 형태로 제주에 산재된 오름의 형태를 상징화하여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펜션인 줄로 알고 들어올 정도이다. 교문 입구에서는 제주의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청이와 깨끗한 물, 해안환경을 상징하는’ 정이 ‘돌비가 반갑게 맞이한다.

유치원동과 본관동은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는 사각뿔 모양을 하고 그 꼭지점에 다시 사각뿔을 반으로 쪼갠 모습이 가운데 쪽을 향하고 있어 힘을 모아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오랜궁궐같이 흰색과 연한 노란색을 배합한 건물 모습은 바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여 딱딱한 시멘트의 느낌을 저버리게 한다. 건물 앞과 뒤, 사이 사이에는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어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지하의 환기를 위해 건물 중앙 요소 요소에 환기용 장식이 건물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반듯하게 서 있다.

교실 및 중정, 유니트화된 모듈로 구성

서귀포온성학교 설계의 특징으로는 무장애 교육 공간, 에너지 절약, 기능별 공간 분리 계획, 자연 친화적 건축 계획을 들 수 있다.

평면 계획의 특징을 보면 먼저, 특별교실군 및 자료실을 조닝으로 구성하여 이용의 연계성을 높였다. 그리고 지하층의 단점을 보완하여 중정을 도입하였으며, 내부 기능을 형태 계획에 반영시켜 인지도를 높였다. 외부 공간 계획으로는 운동장을 둘러싼 건축 배치로 단위 마당으로서의 직접 연계를 꾀하여 이용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장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연과의 친밀한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단위실들은 직접적인 빛의 유입은 물론 피난시 단시간 내 대피 장소로서의 역할, 건물 매스의 분절 및 분할로 인한 명확한 실

구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채로운 복도 환경의 조성 및 친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루한 복도 구성을 탈피한 점도 돋보인다.

강당 역할을 하는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대공간은 특정 기능으로서의 활용을 벗어나 다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각 교실과 중정부분이 유니트화된 모듈로 되어 있어 내부 공간 및 외부 형태가 다채롭게 조화되고 자연 채광과 통풍의 극대화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였다.

어울림마당, 놀이공간이자 활동 무대

학교에 들어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어울림마당이 방문자를 반갑게 맞아준다. 이곳은 학생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자 활동무대이다. 각종 공연 발표가 모두 여기에서 펼쳐진다. 각종 전시회도 이루어지며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과 학생이 처음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장소도 어울림마당이다. 1층, 2층을 모두 뚫어놓은 중정이 시원함을 더해준다. 우천시 애국조화도 체조조화도 모두 여기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교기념일에는 도예, 제과·제빵, 그리기 등 1년 동안의 활동을 어울림마당에 전시하여 학부모들은 물론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학교 활동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 가을에는 꽃 전시회, 작품 전시회, 각 부별 장기 자랑 등이 여기서 꽃을 피우게 된다. 특히, 음악회 등은 공연자와 청중이 모두 만족하다는 평을 받을 만큼 기능을 다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 시설

서귀포온성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아담하지만 우람하게 지어진 학교로 학생들의 복지를 가장 우선하여 건축하였다.

지하층에는 치료실을 배치해 치료는 건

강의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하다. 지하실은 선큰으로 처리하여 햇빛이 파고들고, 지하의 공기는 지상 운동장 및 뒤뜰로 교류되어 지하실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지하 각 교실마다 천장에서 햇빛이 들도록 건축되었으며, 환기창이 운동장과 뒤뜰로 연결되어 항상 상쾌한 공기가 유입된다. 지하의 교실 앞에는 햇빛이 비치는 화단이 설치되어 지상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공예부 문인도예실에는 전기가 마와 가스가 마가 설치되어 장애 학생들이 근육 훈련과 직업 기능을 익히고 있다. 특히, 어렵게 빚어낸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보존하여 학생들이 희열을 맛보는 곳이기도 하다.

물리치료실은 암벽 타기, 러닝 비만 치료, 걷기 훈련기 등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치료 활동에 중심이 되고 있다. 걷지 못하던 학생이 차츰 걷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서게 되는 일들은 이곳에서의 치료 활동 덕분이다.

언어치료실은 특별한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고안되었고, 각종 발화기 등의 자료를 마련하여 언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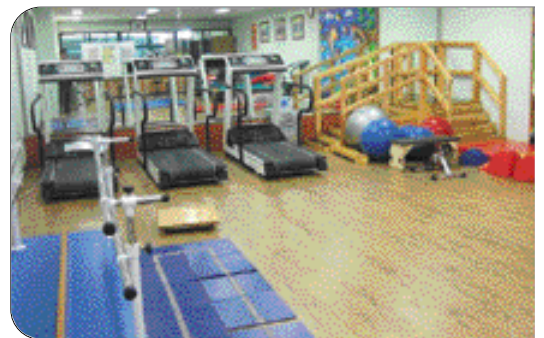
제과제빵실은 학생들이 반죽을 하면서 근육 훈련은 물론 작업 후 성취의 욕을 맛보게 한다. 자신이 빵을 만들어 먹는 기쁨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일상 생활 훈련실은 장애 학생들의 생명선이며, 직업 훈련실은 목공, 조립, 양초 공예, 한지 공예 등 다양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곳이다.

놀이 감각 운동실은 학생들이 제일 즐기는 곳으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하였으며,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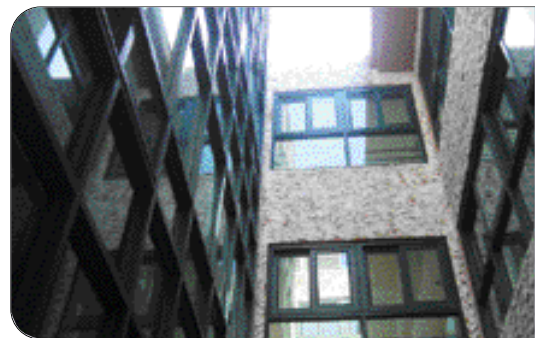
1층은 초등부 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치과 진료소가 있어 1주일에 한번 치과 의사와 간호사



강당 역할을 하는 대공간.



놀이 감각 운동실.



단위실 중정의 햇빛 유입.

가 방문하여 학생들의 구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 번 예방 치료를 해주고 있다.

한라산 자락에 고고하게 서있는 서귀포온성학교는 유재호 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정성,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정관영
충북교육청 건축사무관(공학박사)